

연대성(Solidarity)

연대성은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사회적 연대책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타인의 필요에 따라 자신이 속한 사회의 공동선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적 혹은 공적 제도들을 발전시킴으로써 그 사회의 삶의 조건 개선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이는 사회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의 “정의와 사랑의 의무”(사목헌장, 30)이다. 결국 연대성은 다른 사람이 겪는 불행에 대한 막연한 동정심이나 피상적인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 항속적인 결의이다.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만인의 선익과 각 개인의 선익에 투신함을 뜻한다.”(사회적 관심, 38)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대성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가 타인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억압하는 대신 타인을 섬길 때에 실현된다. 그러기에 부유하며 권력있고 능력있는 사람은 더 약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느껴야 하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과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더 약한 사람들은 같은 연대성에 입각해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히 주장함과 동시에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를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간 매개를 하는 집단들은 자신들의 특정한 이익만을 이기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사회적 관심, 39)

가톨릭교회는 이미 1967년 바오로 6세 교황의 회칙 <민족들의 발전>과 1987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회칙 <사회적 관심>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지적하며, 부유한 선진국이 가난한 개발도상국을 위한 원조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한 바 있다. 해외원조와 같이 약자를 도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이 호소에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 사회 정의, 사랑의 의무와 함께 ‘연대성(Solidarity)’이 중요한 원리로 강조되고 있다.

현대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Gaudium et spes)

제2차 바티칸 공의회

30. 심각하고 급격한 사태의 변화는 어느 누구도 사태의 주위에 무관심하거나 게으름으로 무기력해져 순전히 개인주의 윤리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고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능력과 타인의 필요에 따라 공동선에 기여하고 사람이든 공립이든 인간의 생활 조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단체들을 밀어 주고 도와줌으로써 **정의와 사랑의 의무**를 더욱더 잘 이행할 수 있다. (중략)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사회적 연대 책임을 현대인의 주요 의무로 여기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세계가 하나로 결합될수록 더욱 분명히 인간의 임무도 개별 집단을 뛰어넘어 점차 세계로 확대되어 간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각 개인과 개별 단체들이 스스로 도덕적 사회적 덕을 닦고 그 덕행을 사회에 확산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여 필요한 하느님 은총의 도움으로 참으로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류의 창조자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요한 바오로 2세

1987.12.30

38.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명시적인 신앙을 갖지 않은 남녀들도 총체적인 개발을 가로막는 장애가 단순하게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고 인간들이 절대 가치 앞에서 취하는 더 근원적인 자세에 있음을 확신하리라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모로든 자기 이웃 인간들에게 ‘더욱 인간다운 삶’을 마련하는 일에 책임을 진 사람들은, 종교적 신앙에서 영감을 받은 그렇지 않은 상관없이, 정신적인 자세를 바꾸어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을 철저하게 감지할 것이며, 정신 자세는 개개인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장 멀리 떨어진 인간 공동체들과의 관계, 나아가서는 자연과의 관계를 좌우하게 됨을 알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공동선과 같은 더욱 고차원적인 가치, 회칙 「민족들의 발전」에 나오는 훌륭한 표현을 빌려, **“개인의 인간 전체와 전인류의 완전한 발전”**을 생각하기에 이를 것이다. (중략)

문제는 무엇보다도 상호 의존이니, 현대 세계에서 그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인 요소들에 있어서 상호 관계를 결정하는 어떤 체제라고 이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며, 하나의 윤리적 범주라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만약 상호 의존을 이런 각도에서 파악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태도, 일종의 ‘덕’이라고 할 응답은 연대성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연대성은 가깝든 멀든 그 많은 인간들이 겪는 불행을 보고서 막연한 동정심 내지 피상적인 근심을 느끼는 무엇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 항속적인 결의이다.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만인의 선익과 각 개인의 선익에 투신함을 뜻한다.”**

39. 각 사회 안에서 연대 의식을 행사하는 일은 그 성원들이 서로서로 타인을 인격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유효하다. 재화와 공동 서비스를 더욱 많이 향유하기에 더욱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더 약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느껴야 하며 자기네가 가진 모든 것을 그들과 나눌 태세가 되어야 한다. 한편 **“더 약한 사람들은 같은 연대감의 정신을 갖고서, 그저 피동적인 태도만 취하거나 사회 기틀 자체를 파괴하는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히 주장함과 아울러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해서 자기로서 할 수 있는 바를 행하여야 한다. 중간 매개를 하는 집단들은, 다른 편에서, 자기네 특정한 이익만을 이기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존중하여야 한다.”**

같은 기준이 유비적으로 국제 관계에도 해당된다. 상호 의존은, 창조계의 재화가 만인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연대 의식으로 변형되어야만 한다. 원자재를 가공 처리하여 또 노동의 기여를 통해서 인간 산업이 생산한 것은 만인의 선익을 위해 공평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온갖 유형의 제국주의와 자기네 패권을 존속시키려는 결의를 극복하고서 더욱 강하고 부유한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윤리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며, 그렇게 함으로써만 진정한 국제 체제가 건설될 것이니 그런 체제는 모든 민족들의 평등을 기반으로 하고 동시에 그들의 합법적인 차이성에 대해 필요한 존중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 또는 아직 자급자족하는 수준에 있는 국가들은 다른 국민들과 국제 공동체의 조력을 받아 인문과 문화의 보고를 갖고서 공동선에 나름대로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같은 가치들은 이렇게 배려하지 않으면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바오로 6세

1967.3.26.

48. 개인간에 개재하는 연대성의 의무는 국가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을 원조해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다.”(사목헌장, 86) 공의회이 이 원칙은 실천에 옮겨져야 하겠다. 어떤 국가가 자기 노동의 대가로서 하느님의 섭리로 받은 선물을 다른 국가보다 먼저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국가도 자기만을 위해서 독점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들이 제 국민을 인간다운 생활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뿐 아니라, 또한 전 인류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더욱 좋은 것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 개발이 늦은 국가들의 빈곤이 더욱 증대하고 있으므로 선진 국가들이 생산품의 일부를 그들의 필요에 응하여 양보하고 나아가서는 지식과 경험으로써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육자, 기술자, 전문가, 학자들을 양성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하겠다.

보조성(subsidiarity)

‘보조성의 원리’란 집단의 횡포로부터 개인을, 나아가 상위 집단의 전횡으로부터 하위 집단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보조성의 원리’라는 용어는 20세기 중반부터 사회윤리학자들에 의해 빈번히 사용되었지만, 이 원리는 내용적으로 오랜 그리스도교 전통에 속한다. 교황 비오 13세는 보조성의 원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인간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또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에게서 박탈하여 사회 기능에 떠맡겨서는 안되는 것처럼, 보다 작은 하위 단체가 능히 치를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보다 큰 상위 단체에 속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은 정의에 위배된다.”

이처럼 보조성의 원리는 관료주의적 지휘 계통과 조합주의적 독점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형태와 구조를 배척하며, 언제나 하위 집단과 중간 집단의 기본적 권리와 역할을 강조한다(사목헌장, 86).

보조성의 원리는 개인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집단들이, 하위집단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상위집단들이 그리고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전체사회, 즉 국가가 떠맡거나 빼앗지 않고, 당사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공동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보조성은 도움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는 상위집단의 전횡을 막기 위한 원리인 것이다.

따라서 한층 더 작은 하위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 큰 상위의 집단으로 옮기는 것은 불의하고 중대한 해악이며, 올바른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모든 사회활동은 본질적으로 사회 구성체의 성원을 돕는 것이므로 그 성원들을 파괴하거나 흡수해서는 안된다.”(사십주년, 35)

사십주년(Quadragesimo Anno)

비오 11세
1935.05.15.

35. 역사가 명백히 보여주듯이, 사회 상황의 변화 때문에 이전에는 소규모 집단이 수행하던 많은 일이 지금은 대규모 조직체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인의 창의와 노력으로 완수될 수 있는 것을 개인에게서 빼앗아 사회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은 확고부동한 사회 철학의 근본 원리이다. 따라서 한층 더 작은 하위의 조직체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더 큰 상위의 집단으로 옮기는 것은 불의이고 중대한 해악이며, 올바른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모든 사회 활동은 본질적으로 사회 구성체의 성원을 돕는 것이므로 그 성원들을 파괴하거나 흡수해서는 안된다.

국가 권력은, 자신에게 중대한 혼란의 원천이 되며 중요성이 적은 사업과 활동의 수행을 다른 조직체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국가는 고유하게 국가에 속하고 국가만이 수행할 수 있는 임무를, 상황이 제안하고 필요가 요청하는 대로, 지도하고 감독하고 격려하고 억제하면서 더 자유롭고 힘차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자들은 이 “보조성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를 더욱 충실히 따르고 다양한 조직체간의 위계질서가 널리 받아들여질수록, 사회의 권위와 능률이 더욱 높아지고 국가의 상태는 더욱 행복하고 번영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대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Gaudium et spes)

제2차 바티칸 공의회

86. 이러한 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범들이 적절하게 보인다.

가) 개발 도상의 민족들은 발전의 목표로서 명백히 또 확고히 자기 국민들의 총만한 인간 완성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발전이란 모든 것에 앞서 바로 그 민족의 노력과 재능에서 시작되고 진보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발전은 외국 원조 뿐 아니라 먼저 자기 것을 충분히 개발하고 이를 자기 역량과 전통으로 육성하는 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나) 개발 도상 국민들이 위에서 말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원조하여야 할 선진 민족들의 의무는 막중하다. 그러므로 선진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세계적 협력 정착에 요구되는 정신적 물질적 내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더 힘없고 더 가난한 나라들과 하는 교역에서는 그들의 선익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생산품의 판매에서 얻는 수익은 바로 그들의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 성장의 통합과 촉진은 국제 공동체의 소임이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마련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충분히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보조성의 원리를 반드시 지키며 전 세계의 경제 관계가 정의의 규범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이를 다스리는 것도 이 국제 공동체에 딸린 일이다.

국제 교역, 특히 저개발 국가들과 교역을 관리하고 증진하며 국가 간 힘의 과도한 불균형에서 오는 결함을 보완하도록 적절한 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기술적, 문화적, 재정적 원조와 결부된 이러한 조정으로 발전 지향 국가들이 적절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동선(Common Good)

공동선이란 개인들의 이익의 단순한 합계, 즉 개인들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선의 총계는 아니다. 공동선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완성을 더욱 충만하게, 더욱 더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모든 조건을 포함”(어머니요 스승, 69)하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공동선이란 “집단이나 구성원 개개인으로 하여금 더 완전하고 더 용이하게 자기완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생활상 여러 가지 조건의 총체”로 구성되는 인간의 선익(bene humane, human good)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동선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만인의 선익과 각 개인의 선익”(사회적 관심, 38)으로 표현하면서 공동선은 “개인적 이익들의 합계가 아니라, 결국 균형 잡힌 가치 질서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인들의 성숙한 평가와 조화를 포함하는 것”(백주년, 47)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동선은 첫째, 모든 이가 공동선의 혜택을 누려야 하며, 둘째, 개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요 스승(Mater et Magistra)

요한 23세
1961.05.15.

69. 그 가운데서도 어떤 나라들에서는 대다수가 극도의 빈곤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극소수의 부요와 과소비가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극명하고도 가혹하게 대비되고 있다. 또 어떤 나라들에서는 정의와 형평의 법칙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단기간의 국가 성장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또 다른 나라들은 소득의 엄청난 부분을 지나친 국위 신장에 낭비하고 있으며, 막대한 돈을 전쟁 준비에 허비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si)

요한 바오로 2세
1987.12.30.

38. 그렇다면 연대성은 가깝든 멀든 그 많은 인간들이 겪는 불행을 보고서 막연한 동정심 내지 피상적인 근심을 느끼는 무엇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 향속적인 결의이다. 우리 모두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만인의 선익과 각 개인의 선익에 투신함을 뜻한다.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부유한 자들을 배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우선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비하여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가 우선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한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원하고 해방하려는 교회 본연의 활동이다.

교회가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의 사랑과 선택에 근거한다. 하느님은 보잘 것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어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하느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언자들을 파견하셨다. 또한 하느님은 보잘 것 없는 이를 선택하시어 당신 아드님을 파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부요하셨지만 가난하게 되셨고,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하느님 자신이시지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새로운 사태, 17) 이는 그리스도께서 "인간 조건 안에서 가난과 빈곤의 상태를 선택"(자유의 자각, 66)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며 그 존엄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가난한 사람'은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삶을 방해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가난으로 인하여 인간 존엄성에 손상을 받는 것은 하느님의 모상이 손상 받는 것이며, 나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느님께 손상을 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손상된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는 것이며, 손상된 하느님의 영광을 보상하는 활동이다.

새로운 사태(Renum Novarum)

1891.5.15.

교황 레오 13세

17. 교회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처지와 가난이 하느님 앞에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즉,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과 고귀함은 전적으로 도덕 곧 덕행으로 응답하는 태도에 있다. 덕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건 낮은 신분의 사람이건, 부유한 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쌓을 수 있는 공동 유산이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영원한 행복의 보상은 오로지 덕을 쌓는 행업에만 베풀어진다. **더욱이 하느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으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은 행복하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이다.(Mt.5,3) 그분은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모든 사람을 인자로우 부르시어 당신께로부터 위안을 받게 하신다.(Mt.11,28) 무력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넘치는 사랑으로 감싸주신다.** 이러한 진리들은 부유한 자들의 오만한 태도를 낮추고 불쌍한 자들의 굴욕적 자세를 치유해 주는 놀라운 효력을 지닌다. 또한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모두에게 절제와 관용의 정신을 고취시키는 힘을 지닌다.** 이러한 진리에 힘입어 교만이 빚어낸 간격이 좁혀지고 두 계층이 서로 화해함으로써 우정 어린 화합에 일치하게 되는 일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유 의 자각(Libertatis Conscientia)

1986.3.22.

교황청 신앙교리성

66.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부요하셨지만, 당신의 가난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다.(2Cor.8,9) 성 바오로 사도는 여기서 영원하신 아들의 육화의 신비를 말하고 있다. 죄악이 인간을 그리로 몰아넣었던 불행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죽음에 이르는 인간 본성을 취하시려고 오셨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조건 안에서 가난과 빈곤의 상태를 선택하셨다.(Lk.2,7:9,58)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부요가 무엇인지, 하느님과 생명의 친교를 이루는 부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상의 부요를 멀리하고 하늘의 부요를 구하라고 가르치셨다.(Mt.6,19-20,24-34;19,21)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사도들 또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의 가난에 참여하여야 했다.(Lk.5,11,28;Mt.19,27)

그리스도께서는 예언자들에 의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구세주로 예언되셨다.(Is.11,4;61,1;Lk.4,18) 또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느님 나라의 정의를 갈망하는 "야훼의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들을 발견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비록 이 세상의 재물로는 부요할지라도 "세리들과 죄인들"처럼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셨다.(Lk.19,1-10;Mr.2,13-17) 그분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러 오셨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가난, 하느님께 대한 신뢰, 나눔의 각오, 절제와 초탈로 이루어진 가난을 예수께서는 행복하다고 선언하셨다.